

日, 중학생에게도 ‘독도 왜곡’ 주입

문부과학성, 6일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확정

외교청서에 ‘일본 땅’ 주장 담아... 정부 강력 대응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곧 검정 결과와 공개될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 교육계 소식통은 오는 6일째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출판사들이 검정 신청을 한 중학교 사회과의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 총 18권의 교과서 중 1~2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갔으며, 독도 기술이 들어간 교과서는 대부분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에는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가운데, 복수의 역사 교과서가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라는 표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교과서 기술은 이번이 아닌 6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상당수 일본 중학생은 앞으로 공민·역사·지리 등 3개 과목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배우게 된다.

교과서 검정 제도는 1차적으로 민간이 쓴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지만 출판사들이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을 대폭 강화한 것은 아베 정권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작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한 데 이어 같은 달,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을 명시했다.

앞서 작년 4월 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도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터에 이번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의 반발이 불가피해 한일관계에 추가 악재가 생길 전망이다.

반면, 이번에 검정에 올라온 일부 진보 성향 출판사 교과서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의 담화)와, 군위안부 제도의 감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 담화를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된다.

한편, 일본의 외교백서적인 ‘외교청서’가 올해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다.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5년 외교청서 초안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전의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이 같은 표현을 외교청서에 적시해 왔다. 초안은 또 한국을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로 규정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초안은 또 전후(戰後) 70년간 일본의 행보와 관련, “앞선 대전(2차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는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안을 담았다고 교도는 소개했다. 기시다 후미오(菅田文雄) 외무상은 7일 외교청서 초안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외무성은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9년만에 외교청서 전문(全文)의 영어판을 만들 계획이다.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 및 일본의 외교 활동 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이 조만간 발표할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격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中 주도 AIIB 창립회원국 50개국 육박

대만 등 49개국 신청... ‘파워 패러다임 변화 상징’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결과 참가국 규모가 5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일인 지난 31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중국에 AIIB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예정창립 회원국 포함)는 모두 46개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마카오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가 동참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두 나라를 포함하면 참가국은 48개국으로 늘어난다. 대만이 신청서를 낸 것까지 포함할 경우 49개국에 참가한 셈이다.

다. 다만, 중국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발표될 참가국 공식 집계에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 당국이 1일 현재까지 최종 마감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하는 국가는 약 2주간의 심사를 거쳐 4월 15일께 최종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참가국 분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양주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아시아가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30개국으로 가장 많고 유럽 국가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2개국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될 경우 유럽 국가는 14개국으로 늘어난다. 대양주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등 2곳이었고,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로는 각각 브라질과 이집트만이 참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이 모두 참가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는 13개국이 가입을 신청했고 주요 7개국(G-7) 중에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4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구축을 목적

으로 하는 AIIB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10월 처음 제안한 것으로 자본금 500억 달러(약 56조원) 규모로 출발한 뒤 자본금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예정이다.

AIIB는 시 주석이 제창한 글로벌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금융수단이 될 전망이다.

중국 언론들은 당초 예상보다 많은 국가들이 마음을 앞두고 앞다투어 신청을 한 것을 크게 반기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분석기사에서 “AIIB는 파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스 파울 뷔르커너 보스턴컨설팅그룹 회장은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의 파워가 신흥시장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신흥국가가 국제금융기구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티크리트 탈환에 나선 이라크군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무장 차량들과 함께 시 중심부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 하이데라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날 이라크군이 수도 바그다드 북부 130km에 위치한, 살라후딘 주(州)의 주도 티크리트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라크군, 티크리트 탈환...이젠 모술이다

하이데라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31일(현지시간) 이라크군이 살라후딘 주(州)의 주도 티크리트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알라바디 총리는 이날 트위터 통해 “티크리트를 해방했으며 (이에 기여한) 이라크군과 지원한 (시아파) 민병대의 역사적 사건을 축하한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2일 티크리트 탈환작전을 개시한 지 거의 한 달 만이다.

이라크군은 이날 오후 시 중심부로 진입하면서 IS와 치열하게 시가전을 벌였고,

IS가 민가와 관공서 등에 설치한 폭발물을 제거 중이다. 작전중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AFP통신은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 킴 미켈슨 대변인이 이메일을 통해 “티크리트 일부를 여전히 IS가 통제하고 있고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해 6월 본격화한 IS 사태 이후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개입 없이 이라크군의 단독 작전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 주목받았다.

이라크군은 시아파 민병대, 친정부 수니

파 부족과 함께 3만명 규모로 공동 작전을 폈다.

인구 25만 명 정도의 티크리트는 수도 바그다드와 IS가 점령한 이라크 제2도시 모술을 잇는 길목으로, IS가 지난해 6월 빼앗은 요충지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축출된 수니파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탓에 시아파 이라크 정부가 반대하는 강성 수니파가 많아 IS가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이라크군이 티크리트를 되찾으면서 IS의 이라크 점령지의 중심인 모술 탈환작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터키 검찰청서 인질극

테러범 2명 사살... 검사 사망

터키 테러단체 조직원들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이스탄불 검찰청에서 검사를 인질로 잡은 사상 초유의 인질극이 8시간 만에 종료됐다.

경찰 특공대는 인질범과 협상이 실패하자 구출작전을 개시해 범인 2명을 사살했지만, 검사는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 상태다.

극좌 성향의 테러단체인 ‘혁명민족해방전선’(DHKP-C) 소속으로 알려진 이들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이스탄불 차올라얀 법조단지 내 검찰청 6층의 메흐메트 셸림 카라즈 검사 집무실에 난입했다.

이들은 카라즈 검사를 인질로 잡고 지난 2013년 반정부 시위 당시 최루탄에 맞아 숨진 베르킨 엘반(15) 군의 죽음에 책임을 있는 경찰관들이 생방송으로 범행을 자백하라는 등의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이들은 엘반 군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카라즈 검사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사진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요구 사항을 3시간 안에 수용하지 않으면 검사를 죽이고 청사 안에 설치한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진에는 카라즈 검사의 집무실 벽에 붙은 DHKP-C 깃발과 엘반 군을 추모하는 깃발 등이 찍혀 있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투입했으며, 인질범이 요구한 중재자를 통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협상 시작 6시간이 지나고 청사 내에서 폭발음과 총성이 나오자 경찰은 즉각 구출작전을 개시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인질범과 검사 외에도 변호사 1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폭발물이 3차례 터졌다고 보도했지만 알트누크 서장은 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인생에 대박찬스 한글전화번호 1636에서 잡으세요!

1636 KTX, 1636 롯데면세점, 1636 삼성카드, 1636 KBS, 1636 YTN

지금 잡으세요! 기회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국민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국가통신과 IT가 하나되어 펼쳐진 사업
- 전국 1%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 불경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업
- 평생 연금처럼 보장받는 사업

대리점(사업자) 모집
영업사원 모집(생활보장)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꿈' 심사관'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당선자들이 (주)유유네이처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유유네이처 Ginsam RG3 X150

인삼 대사사포닌 유유인삼추출액 YY-351

70여년 전통의 유유제약 인삼 대사사포닌 RG3 특허기술로 제조 인삼 대사사포닌 RG3일일(1병당) 60mg 함유 국내 우수 대학병원의 연구개발 참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유유네이처 방문판매 지사모집

- 현재 방문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신 분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웰빙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소자본 창업

문의 | 지사개설
Tel. 062-363-8600
Tel. 010-4602-9897

yuyu nature HEALTH & LIVING